

1754일만에 선발... '한화 9연패' 막았다

1회 실점 후 침착하게 위기 돌파
5·6회 공 19개로 연속 삼자범퇴
정근우 투런포 화끈한 득점 지원



한화 이글스가 1754일 만에 선발투수로 나선 임준섭의 인생투를 앞세워 기나긴 연패에서 탈출했다. 최하위로 추락할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한화는 31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7회초 한 차례 찬스를 5득점 빅이닝으로 살려내며 짜릿한 5-2 역전승을 거뒀다. 3-1로 전세를 뒤집은 정근우의 결승 2점포가 반짝 반짝 빛났다. 또 8회말 1사 1루서 등판해 아웃카운트 5개를 잡은 마무리 정우람의 슈퍼 세이브도 돋보였다. 이로써 한화는 7월 14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부터 이어진 8연패의 사슬을 가가쓰로 끊었다.

6이닝을 4안타 3볼넷 2삼진 1실점으로



임준섭

막아준 좌완 임준섭의 역투가 결정적이었다. KIA 소속이던 2014년 10월 11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5이닝 4안타 3실점·승리 투수)을 끝으로 중간계투로만 나섰던 타라이날의 6이닝 85구 투구는 깜짝 놀랄 만한 호투였다. 더욱이 팀 타선은 1-2-5회 잇따른 병살타로 임준섭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임준섭은 흔들리지 않았다. 1회말 2안타로 먼저 실점했지만, 침착히 한이닝 한 이닝 지워나갔다. 2회말 1사 1-2루, 4회말 1사 1-2루 위기도 노련하게 이겨냈다. 투구수가 점점 불어나는데도 5회말과 6회말에는 각각 11개, 8개의 공으로 연속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직구(72개) 일련도의 피칭인데다, 최고 구속 또한 144km로 강력하진 않았지만 스트라이크존을 폭넓게 활용한 덕에 KT 타자들의 방망이를 비껴갈 수 있었다.

임준섭에게 미안함만 쌓여가던 한화 타자들은 7회초 모처럼 집중력을 발휘했다. 중전안타로 포문을 연 선두타자 제라드 호

잉의 발이 KT의 허를 찔렀다. 1사 후 김태균 타석에선 2루를 홈친 데 이어 2사 후 송광민의 내야안타 때는 유격수 심우준의 송구가 치우친 틈을 타 홈까지 달려들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7번 1루수로 선발출장한 정근우가 그 기회를 이어받아 호투하던 KT 선발 김민을 2점홈런으로 두들겼다. 몸쪽으로 날아든 시속 130km짜리 조구 체인지업을 좌측 담장 너머로 날려 보냈다. 계속된 2사 2-3루 찬스서 정은원의 썩기 2타점 우전적시타까지 이어져 스코어는 순식간에 한화의 5-1 리드로 바뀌었다.

임준섭은 당분간 선발로 기회를 더 얻을 전망이다. 부진한 김범수를 대신한 임시 선발의 성격이 짙지만, 첫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로 팀의 연패탈출에 앞장선 공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펜으로 시작해 선발로 정착한 장민재처럼 임준섭도 반전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31일 게임 브리핑

롯데 손아섭 700사사구 부상 KT 김민혁 1군 제외

●롯데 손아섭, 개인 통산 700사사구

롯데 손아섭이 KBO리그 38번째로 4사구 700개를 돌파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 1-2루 뒤진 3회 1사 3루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삼성 선발 김윤수의 제구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고 침착히 볼을 골라내 1루까지 걸어갔다. 개인 통산 670번째 볼넷이자 700번째 4사구였다. 2007년 데뷔한 손아섭은 커리어 초반만 해도 선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침착함을 갖췄고, KBO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한편 이 부문 최다 기록은 양준혁(1380사사구)이다.

●'6이닝 무실점' 성공적 복귀 알린 류제국

LG 류제국이 위력적인 투구와 함께 돌아왔다. 류제국은 잠실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삼진 2안타 2볼넷으로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득점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승수를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부상으로 한 달 여간 휴식을 취해야했던 아쉬움을 단번에 씻어냈다. 왼쪽 골반 통증으로 1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류제국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4선발로 로테이션에 정상 합류했다. 복귀전서 퀄리티 스타트(선발 등판 6이닝 3자책점 이내)를 작성한 류제국은 성공적으로 후반기 첫 발을 내딛었다.

●한용덕 감독 "정근우, 당분간 1루수 기용"

한화 한용덕 감독은 수원 KT전에 앞서 정근우를 당분간 1루수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1루수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다만 추후 변우혁을 비롯해 1루수로 키워야 할 신인급 선수들이 1군에 합류하면 정근우가 중견수로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우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1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에는 4타수 2안타로 시즌 6번째 멀티히트를 신고했다.

●오른 중지 부상 KT 김민혁, 결국 1군 제외

KT 외야수 김민혁이 오른 중지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민혁은 28일 수원 LG전 때 주루플레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입어 30일 구단지정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았고, 인대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에 따라 수원 한화전에는 결장했다. 31일 MRI 재판결과 2주간 김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김민혁은 올 시즌 93경기에서 주로 리드오프를 맡아 타율 0.302, 24타점, 49득점, 14도루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무더위 쫓아! 매년 여름 펼쳐지는 워터 페스티벌은 KT 홈구장 위즈파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31일 한화전에서 치어리더들과 관중들이 서로 물총을 쏘며 즐거워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양현종-김광현 나란히 131승... "너를 넘고 가련다"

(통산)

KIA 양현종, 부진 딛고 V 행진
SK 김광현은 오늘 132승 도전

한국 대표팀의 두 기둥은 여전히 든든하다. 131승을 나란히 기록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양현종(31), SK 와이번스 김광현(31)의 이야기다.

양현종과 김광현의 개인 승리 행진이 올 시즌 순조롭다. 둘은 나란히 10승 이상을 돌파하며 7월까지 각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 명이 승리를 챙기면 다른 한 명이 곧바로 따라가며 KBO 통산 승수 공동 8위 기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양현종은 30일 SK전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11승에 입맞춤 했다. 초반 부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균자책점은 어느새 2.92까지 내려갔다. 이닝도 129.1이닝을 소화해 6년 연속 150이닝 돌파 기록도 눈앞에 뒀다. 시즌 성적은 11승 8패, 평균자책점은 2.92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이닝에 대한 그의 욕심은 끝이 없다. 30일 경기를 마치고 난 뒤 평균자책점에 대



양현종

김광현

한 이야기가 나오자 "평균자책점은 언제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닝만큼은 여전히 욕심이 있다. 팀을 위해 더 많은 소화력을 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김광현 역시 거침이 없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07을 기록했고, 시즌 12승도 일찌감치 마크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천적이 없는 고른 활약으로 에이스의 위엄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시즌 1호 전 구단 상대 승리투수로 올라서며 9개 구단 상대로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기를 지나 하반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31승 좌완 투수의 맞대결 박병은 올해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모두 후반기를 첫 번째 선발투수로 시작해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현종의 7월 26일 등판이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순번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양현종은 7월 30일 SK전에 등판했고, 김광현은 예정대로 1일 KIA전에 출격할 예정이다.

양현종이 SK와의 3연전에서 팀에 1승을 안긴 만큼 김광현 역시 물러설 수 없다. 올 시즌 유독 팀이 KIA에게 고전하는 것을 만회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SK는 8개 구단을 상대로 우세를 기록 중인데, 유독 KIA에게만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승리를 기록할 시 통산 개인 승리 경쟁에서도 다시 한 발 앞선다. 현재 함께 131승을 기록 중인데, 김광현이 시즌 13승을 마크하면 KBO 통산 132승을 거둬 단독 8위 자리를 점하게 된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동갑내기 좌완투수의 승리 경쟁이 올 시즌 어디까지 이어질 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송은범(왼쪽)이 31일 잠실 키움전 0-0으로 맞선 7회 LG 소속으로 첫 등판했다. 그러나 첫 타자 박동원에게 안타를 허용했고 두 번째 타자 임병욱의 타구에 다리를 맞아 결국 교체됐다.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적 첫 등판부터 "악!" 송은범 타구 맞고 교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트레이드로 소속팀을 맞바꾼 송은범(LG 트윈스)과 신성락(한화 이글스)은 홈 팬들과의 첫 만남에서 나란히 아쉬움을 남겼다.

출발이 좋지 않았다.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구원 등판한 송은범은 이적 후 첫 경기서 부상과 패전의 멍에를 함께 떠안았다. 같은 날 대전화성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한화 구원 투수로 첫 선을 보인 신성락 역시 0.1이닝 1실점으로 흔들렸다. 그나마 팀이 5-2 승리를 거둔 것이 위안이었다.

송은범의 불운이 더욱 컸다. 필승조 역할을 맡아 0-0으로 맞선 7회 끝무늬 유니폼을 입고 출격했다. 첫 타자 박동원에게 좌익수 방면 안타를 맞은 뒤 볼의 사고가 났었다. 후속 타자 임병욱의 타구가 송은범의 왼 발 뒤꿈치를 강타했다. 고통을 호소한 송은범은 곧장 코칭스태프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송은범은 아이싱 후 엑스레이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필승조가 대량 실점하면서 송은범(2실점)은 패전 투수가 됐다. 진해수가 박정음에게 번트안타를 허락하며 무사안무 위기를 맞았고 아쉬운 수비까지 이어지며 2점을 내줬다. LG는 1사 이후 문광은까지 내세웠지만 속수무책으로 실점이 쌓여 7회에만 0-6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승기를 잡은 2위 키움은 최종 8-0 승리를 거두고 1위 SK 와이번스를 5.5경기 차이로 추격했다.

웃지 못한 것은 신성락도 마찬가지다. 5-1로 앞선 7회 구원 등판해 첫 타자 문상철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뒤이어 장성우를 우익수 뜯공으로 돌려세웠지만 이태양과 교체돼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이태양이 2사 이후 심우준에게 중견수 쪽 안타를 맞고 문상철에게 홈을 내어주면서 신성락의 자책점이 올라갔다.

서대원 기자 seody3062@donga.com